



“4·3희생자 배·보상금 8960만원 수용”

유족회 ‘1인당 균등 지급’ 정부 방안 일부 수용키로 “향후 입법과정서 합리적 금액 책정에 노력할 계획”

제주4·3 희생자 1인당 8960만원씩 '균등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을 4·3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가 일부 수용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표명,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금액 책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지난 8일 회의를 통해 행정안전부 영역에서 제시한 희생자 1인당 8960만원 균등 지급 방안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이날 오임종 유족회장은 “그동안 정부에서 4·3 해결을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4·3특별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배·보상 지급 방안을 수용키로 했다”며 “아울러 올해 내로 4·3특별법 재개정 작업 및 입법화를 완료해야 한다는 촉박함도 있었다. 조만간 수용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회장은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과거사 사건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진행될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인 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행정안전부는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유족회를 대상으로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비교개로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용역진(한국법제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기존 차등지급 방식을 배척하고, 희생자 1인당 8960만원(위자료 형식 2000만원·실질 배보상 6960만원)을 균등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희생자 배·보상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희생자의 가족(배우자·형제·자녀 등)에 대한 배·보상과 4·3 당시 가족이 몰살 당하는 등 애매한 상속권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오임종 회장은 “향후 입법 혹은 법 개정 과정에서 희생자 가

족에 대한 배·보상이 담길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며 “상속권 문제는 민법에 규정된 범위를 확대해 최대 5촌까지 상속권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유족회의 의견이 접수되면 조만간 최종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이 용역 결과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돼 국회에서 재개정되면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배·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4·3희생자는 사망 1만422명, 행방불명 3641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84명 등 총 1만4533명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재판부, 정치인처럼 발언… 법원 권위 실추” 제주4·3도민연대 ‘4·3손해배상 소송 판결’ 규탄

제주4·3 수형인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제주4·3도민연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73년 전 4·3군법회의를 재현한 듯한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의 시대착오적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4·3도민연대는 “7일 4·3 국가손해배상청구 재판에서 제주지법은 청구한 보상금을 단순히 묵살했다”며 “앞선 제심 재판에서 영장 없는 불법 구금,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와 형무소 구금에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해 형사보상금이 지급됐는데도, 류호중 부장판사는 희생자들이 적시한 불법행위 일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출소 이후 전과자로 낙인, 빨갱이 소리를 들으며 명예

훼손을 당하며 살았던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또 수형인은 물론 그 자식까지도 공적인 직장을 가질 수 없었던 연좌제 피해, 느닷없는 불법체포로 인한 학업중단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류 부장판사의 4·3희생자 수가 너무 많아 희생자 사이에 형평 문제 등을 고려했다는 판결은 재판장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하는 정치가의 발언처럼 들렸다”며 “즉 이번 판결은 독립된 사법부가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4·3도민연대는 “이번 판결은 과거 군사독재정권, 4·3당시 이승만의 불법계엄령에 의한 군법회의를 연상케 했다”며 “4·3의 진실에 대해 감히 인정할 수 없다는 이번 재판은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항소 입장을 표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삼성사 추기대제 봉행 10일 제주시 삼성혈에서 탐라(耽羅)국을 세운 고·양·부 삼을나(三乙那)의 위업을 기리고 조상의 덕을 추모하는 삼성사 추기대제가 초한관 고재규, 아현관 양건홍, 중한관 부창순 재판으로 봉행됐다.

사망사고 잇따라 발생

제주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1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0시40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수협 인근에서 A(66·여)씨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10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공천포 교차로 동쪽 도로 인근에서 서 있던 B씨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 성수기 맞은 제주 가을관광 ‘등상이동’ 관광업계 ‘표정관리’… 방역당국 ‘긴장’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를 이용한 제주여행과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제주를 찾는 등산객, 캠핑객 등이 크게 늘면서 관광업계가 모처럼 기지개를 켜고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긴장하고 있다.

11일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한글날 연휴기간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12만

7000여명(잠정)으로 집계됐다. 일별로 보면 8일 4만3000여명, 9일 4만7000여명, 10일 3만6000여명 등이다. 또 한글날 대체휴무인 11일에도 초가를 제주 정취를 즐기기 위해 3만8000여명 안팎의 관광객이 인도해 이번 한글날 연휴 기간에만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6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제주지역은 9월말부터 10월

초까지 추석(17~22일 25만여명), 개천절(8~11일 15만8000여명), 한글날 연휴(16만5000여명)가 연이어 이어지면서 관광객이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방역망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관광업계 확인결과 도내 골프장의 경우 이달 남은 주말기간에는 모두 예약이 끝났고, 특급호텔도 코로나 19 방역 수칙에 따라 전체 객실의 4분의 3까지 예약을 받을 수 있는데 주말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최근 초가를 정취를 느끼기 위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

하고 있는 데다, 캠핑철을 맞아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인구 이동이 증가하면서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글날 연휴기간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해 도내 유명 관광지과 해안도로, 오후, 캠핑장 등지에는 도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도민 A씨는 “한글날 연휴와 가을 행락철이 겹치면서 도내 외곽지 해안, 관광지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면서 “다음달부터 워드코로나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재확산으로 다시 미뤄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미늘·더덕 씹음병, 균핵병 예방

오래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감소

토양 공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필빅산 토양의 pH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을 향상시켜줌

PAA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PGA 앞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박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저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용량 : 20kg

NAVER D.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3세대 4세대 5세대 통신기반 구축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압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